

2025 제19회 정조공파 경로화합잔치 성대하게 개최



정조공파종회(正朝公派宗會: 회장 권오길)는 11월 6일 오전 11시 안동시 경동로 220 안동봉화축협 2층 목향대회의실에서 족친(族親)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19회 정조공파 경로화합잔치”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해재, 영안, 석담 등 3개 문중 파족들은 바쁜 가을농사철 때문에 예년에 비해 족친들이 적게 참석하였다. 이날 역대 정조공파 회장을 역임한 권기만, 권기룡, 권오탁, 권순복 등 4명의 고문을 비롯하여 권혁조 등 원로,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기장 안동시장 부인 황순녀 여사, 권순택 주순, 권영건 안동권씨중

보 보도부장, 부녀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권기장 시장은 안동컨벤션센터에서 큰 행사가 개최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조공파 경로화합잔치를 축하하는 뜻에서 권영창 안동권씨대중회 회장,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안동농협, 안동권씨정조공파 청장년회에서 대형 화환을 보내왔다. 권순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잔치에서 국민의례, 시조 묘소 팽배, 상음례, 회장 인사, 축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오길 파종회장은 단상위로 올라가서 파족들을 향하여 큰절을 올린 후 인사말에서 “파종회장을 맡은 지 8개월이 되

는데 지난 3월에는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안동으로 번지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회고하고 “오늘 경로화합잔치에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권철환 회장은 축사에서 “정조공파는 4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경로화합잔치에 초청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현재 권기장 안동시장이 정조공파로서 시장을 배출한 파(派)이기도 하다”며 “오늘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순택 주순은 격려사에서 “우리 일가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권오길 회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답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기장 안동시장 부인 황순녀 여사는 인사말에서 “시장이 오늘 안동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해 저가 대신해서 나왔다”며 “시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가들이 힘 모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가운데 권오탁 고문이 건배 제의를 하면서 분위기를 북돋우었다. 족친들은 맛있는 소주, 맥주, 음료수를 마시거나 떡과 과일 등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졌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타월 1장씩과 멸치 1봉지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추밀공파 정헌공계 남강공 추계 향사 봉행



남강공(휘諱 常, 21世)의 추계 향사가 11월 23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재실에서 많은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후손들은 남강공의 부(父) 참판공(參判公, 휘 진振), 남강공(南岡公), 장자인 부윤공(府尹公, 휘



수燧), 차자인 지사공(知事公, 휘 황愧) 네분의 추계 향사를 거행하였다. 남강공 선조는 심중대덕경세연인(心中大德經世彦人) 8자를 자손들에게 유훈으로 내리시어 향렬자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직역하면 마음속에 큰 덕을 쌓아 세상을 돌보는 선비가 되라는 말씀이었지만 현대적으로 의역하면 실력을 쌓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되라는 말씀이 되

통과시켰다. 토론 중에 옛날같이 양자 입적을 하지 않는 현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종손의 대가 끊길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조상님 묘신 묘토가 타성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훌륭한 조상님의 묘소관리를 위하여 종중이나 종회의 책임성이 더 중요할 듯하다. 남강공 15세손 권규택

희망을 여는 아침

신중년, 태도를 바꿔 제2의 전성기를 디자인하라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세 북아공파)



에서 배움을 얻어(學) 함께 성장할지 그 방향을 정할 때, 비로소 주도적이고 의미 있는 성장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아는 태도가 신중년 삶의 확고한 기초를 다집니다. **완벽보다 지속성 : 작은 행동이 365개의 기적을 만든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허비하다 실행 일관성(Execution Consistency)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견희 회장님의 독심과 끈기가 증명하듯이, 성과는 결국 포기하지 않는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신중년의 새로운 도전은 완벽함 대신 ‘불완전한 시작’으로 충분하며,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침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동력이자 훈련의 장입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매일 ‘밤 먹듯이’ 반복하는 습관만이 우리를 원하는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오늘 내가 해야 할 단 하나’와 관련된 사람, 전략, 학습 측면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최소 실행 루틴으로 정하고 실행하십시오. 하루하루의 실천은 작아 보이지만, 365일 동안 매일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365개의 성과로 쌓여 새로운 운명을 재설계해 줄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지속성이야말로 신중년이 인생 2막에서 기적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태도 혁명의 실질적인 완성입니다.

맺음말 : 아침을 바꾸는 용기가 당신의 미래를 연다
지난 세월이 쌓은 거대한 지혜를 이제 ‘범고창신’의 정신으로 새롭게 꽃피울 때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와 관계의 깊이는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멈춰 서는 대신,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인생 2막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은 매일 아침 치르는 작은 전투의 승패가 결정합니다. 이견희 회장님의 철학처럼, 인생의 승부는 결국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거창한 목표 이전에, 매일의 작은 루틴을 끈기 있게 지속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침을 지배하는 자가 하루를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하는 자가 남은 인생을 지배합니다. 이 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자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에 쌓여 있는 지혜와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자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내일 아침, 단 한 시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 당신의 미래를 열겠다는 용기 있는 결심뿐입니다. 이 결심이 바로 ‘불완전한 시작’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더 멋지게! 매일 아침의 작은 실천으로 품격 있는 신중년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시기를 백마가 격하게 응원합니다.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추밀공파 정간공종중 임원회의 개최

추밀공파 정간공 종중 2025년 결산을 위한 임원회의가 11월 20일 고양시 원당에 위치한 정간공 종중 회관에서 권병돈 회장을 비롯하여 권병돈 전 정간공 종중 회장, 권유주 매향공 종중 고문,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 권태수 문경공 종중 회장 등 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태수 문경공 종중 회장



2025년 始祖 太師公 秋享祭 案内

2025년도(權紀 1096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 ♣ 장 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일원)
- 연락처 : 서울 02-2695-2483~4/안동 054-854-2256
- ※ 추향제에 참제하는 족친 여러분께서는 당일 입재하여 참제하시기 바랍니다.

※ 추향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종중이나 단체의 제수성금은 향사 전용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301-0268-6817-11, 예금주: 안동권씨대중회)